

# '미나리' 윤여정 27관왕... 오스카상 후보 지명되나

## 미국 피닉스 비평가협회상 '여우조연상' 수상

'미나리' 윤여정의 수상 낭보가 계속되고 있다.

윤여정은 2일(현지시간) 미국 피닉스 비평가협회상에서 영화 '미나리'로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영화는 '유다와 블랙메시아', '뉴스 오브 더 월드', '노매드랜드', '원나잇 인 마이애미', '프라미싱 영 우먼', '소울', '사운드 오브 메탈', '더 디그',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과 함께 2020년 영화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윤여정이 받은 여우조연상은 이

번 상을 포함해 미국 4대 비평가협회상으로 불리는 전미비평가협회상, LA비평가협회상 등 총 27개에 달한다.

'오스카 미러보기'로 불리는 미국 배우조합상(SAG)에서도 한국 배우 최초로 여우조연상 후보에 노미네이트 돼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배우상 후보로 지명될지 관심이 쏠린다.

'미나리'는 한국계 미국인 리 아이작 정(정익식) 감독이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으로 이주한 한 가



정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국내에

서는 3월 개봉했다.

/뉴스

# 소유 오는 11일 신곡 컴백

## 이효리 작사·베이빌론 작곡... 지원 사격

가수 소유가 이효리와 베이빌론의 지원 사격을 받아 컴백한다.

소유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3일 "소유가 오는 11일 오후 6시에 이효리가 작사, 베이빌론이 작곡한 신곡으로 컴백한다"고 밝혔다. 걸그룹 출신이자 솔로 아티스트로 연예계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소유와 이효리, 지난 2015년 데뷔 후 국내 알앤비(R&B) 음악계에 떠오른 뮤지션 베이빌론의 만남이 눈길을 끈다.

이효리와 베이빌론은 함께 곡 작업을 하던 중, 소유에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에 이번 신곡을 선물하게 됐다. 소유도 두 사람의 신뢰에

보답하고자 어느 때보다 높은 완성도의 감성 보컬을 선보였다는 후문이다.

앞서 이효리는 지난달 발매된 베이빌론의 신곡 '혼자'의 작사, 작곡, 프로듀싱을 맡아 호흡을 맞췄다. 이번에 소유까지 의기투합해 세 사람의 시너지에 기대가 모아진다.

소유는 이번 신곡을 통해 지난해 7월 발매한 '가라고(GOTTA GO)' 이후 8개월 만에 가요계에 돌아온다. 소유는 그 사이에도 드라마 '18 어게인', '철인왕후' OST와 '웹시 2021 KPOP 캠페인' 신곡 등으로 활발한 음악 활동을 펼쳐왔다.

/뉴스

# 지수 '학폭 의혹' 논란... KBS '달이 뜨는 강' 어쩌나

## 소속사 "사실 확인중... 제보 받고 의견 청취"

배우 조병규, 박혜수에 이어 지수가 학교폭력 가해 의혹에 휩싸이면서 KBS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조병규와 박혜수는 방송을 앞두고 논란이 불거진 터라 출연 보류나 방송연기로 급한 불을 끄지만 지수는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이 한창 방영 중이어서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3일 지수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사실관계 파악과 더불어 해당 사안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메일을 통해 제보를 받고 왜곡 없이 사실 그대로를 취합한 후 판단하겠다. 아울러 이번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싶다"며 "지목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흘렀기에 사실 여부 및 관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함에 미리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KBS와 드라마 제작사는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KBS는 학폭 의혹이 불거진 연예인에 대해 출연을 보류하거나 방송을 미루는 등 강경한 대처를 보여왔다.

앞서 MC 유재석과 함께 KBS 2TV 새 예능 '컴백홈'에 출연할 예정이었던 조병규는 학폭 의혹이 계속되면서 출연이 사실상 불발됐다.

KBS는 "조병규는 일련의 논란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지만 예상보다 법적 판단이 늦어짐에 따라 출연자의 출연을 강행하는 것은 무



리가 있다고 판단. 조병규의 출연을 보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첫 방송 예정이었던 드라마 '디어엠'은 주인공으로 나선 박혜수가 학폭 의혹에 휩싸이면서

편성이 연기됐다.

지수는 '달이 뜨는 강' 주인공 온달 역으로 출연 중이다. 드라마는 일반 미니 시리즈보다는 긴 20부작으로 현재 6회까지 방송됐다. 온달과 평강(김소현 분)의 로맨스가 본격 전개된 가운데 10% 안팎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월화극 1위를 지키고 있다.

KBS의 효자 드라마로 발돋움 했지만 지수를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것은 부담이다. 프로그램 게시판에는 지수의 하차를 요구하는 글도 잇따른다.

'달이 뜨는 강' 측은 "지수의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해 확인 중"이라며 "추후 논의할 것이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지수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3일 공식 입장을 내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소속 배우 지수에 대해 작성된 게시글 관련 당사는 본 사안을 중대히 인지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이시영 틱톡 팔로워 1000만 돌파

## 국내 여배우 최초 기록

배우 이시영의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 계정의 팔로워가 1000만을 돌파했다.

이는 국내 여성 배우 최초의 기록이자 지난해 8월 계정 개설 이후 7개월 만에 달성한 기록이다.

이시영은 틱톡 영상에서 배우의 장점을 심층 발휘해 코믹한 연기로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주방 소품을 의인화해 대화하는 콘텐츠를 비롯해 헬러윈 데이에 홀로 풀 착장으로 출근 준비를 하고 초조한 얼굴을 보이는 콘텐츠, 사물을 흉내내는 연기와 더불어 엄마와 딸 1인 2역으로 현실 모녀 상황을 선보이는 등 차진 연기로 보는 재미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에 이시영은 틱톡 계정을 통해



1000만 팔로워 감사 영상을 게시했다. "시영아 1000만 되면 뭐 할 거야? 스카이다이빙 어때?"라는 질문에 "미쳤어 그걸 어떻게 해"라고 답한 직후 실제로 상공에서 스카이다이빙을 시행하는 모습으로 웃음을 유발했다.

# '미스트롯2' 결승 진출 7명 대국민 투표 독려 인증샷

가수 양지은, 홍지윤, 김다현, 김태연, 김의영, 은가은, 별사랑이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 결승전 2라운드 대국민 투표를 독려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1번 은가은은 긴 생머리를 내린 채 상큼한 미소를, 2번 김다현은 머리 위에 손가락을 올린 포즈로 깜찍한 앙크를 건넸고 있다.

3번 양지은은 쾌청한 환한 미소를, 4번 홍지윤은 구성진 노래와는 상반된 단아한 미소를 드러냈다.

5번 김의영은 이전과는 달라진 활박 웃음을, 최연소 결승진출자 김태연은 6번을 든 채 사랑스러운 면모를 드러냈다.

7번 별사랑은 씬 스타일이라는 별명답게 새조롭힌 미소로 번호를 강조했다.

4월 방송되는 '미스트롯2' 12회에서 톱7이 진(眞)을 놓고 마지막 대결을 펼친다 톱7은 2월25일 결승 1라운드 '신곡 미션'에 이어 결승 2라운드 '인생곡 미션'에서 인생을 건 무

대에 도전한다.

'인생곡 미션'은 가족, 은인, 꿈 등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주제가 담긴 노래를 선정, 무대 위에서 진심을 풀어내는 라운드다.

'미스트롯2' 제작진은 "톱7이 마지막 앞두고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사활을 건 무대를 선보인다"며 "인생을 걸고 역대급 무대를 선사할 TOP7을 향한 마지막 투표로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이용진 '컴백홈' MC 합류... 유재석·이영지와 호흡

개그맨 이용진이 유재석의 KBS 2TV 새 예능 '컴백홈'에 MC로 합류한다.

'컴백홈' 측은 3일 "이용진이 '컴백홈'에서 MC로 유재석, 이영지와 호흡을 맞춘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서울살이 첫걸음을 시작한 첫 보금자리로 돌아가 청춘들의 꿈을 응원하고 힘을 실어주는 리얼리티 예능이다.

프로그램의 콘셉트를 접한 이용진은 "스무살 때부터 자취를 시작해

자취 경력만 17년인 '프로자취러' 출신"이라며 출연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진행을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컴백홈' 측은 "이용진이 출연을 확정하며 세 명의 진행자 라인업을 완성했다"며 "이용진이 노련하면서도 신선한 감각의 예능인인 만큼, 유재석과 이영지 사이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해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올 상반기 방송 예정이다.

조달청등록제품(나라장터 물품식별)

주식회사 동궁테크  
Dong Koong Tech Co.,Ltd

##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 태양광 LED표지병

태양전지가 태양광에너지를 받아 배터리를 충전하였다가  
일몰이나 우천으로 인하여 주위의 밝기가 일정조도 이하로 어두워지면  
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LED전구가 발광 하는 시스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조명방편, 별도의 전원없이 설치가 간편, 반영구적으로 사용, 야간에 우수한 발광과 반사기능

### 설치장소

- ☑ 도로여건상 사고 위험성이 많은 지역
- ☑ 차선의 감소, 분리, 합류, 교차로부 시인성 향상 구간
- ☑ 항만, 부두, 군사시설, 작전지역 위험 경계표시
- ☑ 기상변화가 많은 해안도로 및 안개지역
- ☑ 자전거도로, 노견선, 버스전용차선, 안전지대, 고속도로 하이패스구간, 휴게소 진입로, 아파트 및 주차장 진입로

**태양광 LED표지병(DK-S119)**

규격: Ø 119×52mm  
발광색상: 황색, 흰색  
재질: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점등방식: 점등형, 점멸형  
조명방식: 태양광/LED  
조달청 식별번호: 23595317(흰색) 23595318(황색)

**도로 표지병(DK-R120)**

규격: Ø 120×30mm  
발광색상: 황색, 흰색  
재질: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조명방식: 반사형  
조달청 식별번호: 23421121  
용도: 도로 중앙선, 차선경계선 등

# Tel (061) 323-5551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길 14-162  
FAX. (061) 323-3144  
E-MAIL. 0613235551@hanmail.net